

주의 승천 대축일
(홍보주일, 청소년주일)

제 1독서 : 사도 1, 1-11

제 2독서 : 에페 1, 17-23

복 음 : 루가 24, 46-53

순정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다.”
(루가 24, 48)

매스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박성팔 신부 / 홍보국장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매스 미디어(Mass media :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각종 영상매체와 출판물 등)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아무리 이 매스 미디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봐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매스 미디어를 ‘제2의 신’이라고까지 얘기한다. 이 말은 매스 미디어가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어느 한 순간도 매스 미디어를 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얘기일 것이다.

학자들의 지적에 의하면 매스 미디어에 형성된 대중(남녀노소)은 자신도 모르게 매스 미디어적 사고방식과 언어에 길들여져 진리와 존재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상적인 것에만 집착, 과장된 주관주의에 빠지기 쉽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스 미디어에 종사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진실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보다는 다분히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데 있다. 특별히 영상매체인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를 접하는 대중은 자신도 모르게 ‘매스 미디어’라는 환각체를 먹으면서 피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매스 미디어를 대할 때 복음의 가치인 생명, 인간의 존엄성, 사랑, 희생, 나눔,

봉사, 진리 등 올바른 가치보다는 비뚤어지고 파괴적인 폭력, 섹스, 재물(돈) 등을 쉽게 만난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들도 인명경시 풍조와 배금사상, 쾌락 등에 만연되어 가치판단이 흐려지고 피동적인 인간,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29번째 맞는 홍보 주일이다. 홍보 주일을 맞이하여 역대 교황님들이 발표하신 메시지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매스 미디어를 통한 복음화이다. 교회는 홍보매체를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인류 구원 사업의 수단으로 보고, 이를 활용해왔다. 또한 교회는 일찍이 홍보매체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규정하고, 매체이용과 선용을 강조하며, 미디어 수용에 따른 책임과 권한,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해온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각종 홍보매체가 사람들의 사고방식, 인생관, 세계관까지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가 발명된 지 100주년이 되는 금년에도 교황님께서는 ‘문화가 가치의 전달자’인 영상 대중매체의 위험성과 함께 효용성을 깊이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에서 영화매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하셨다. 교회의 이러한 노력들은 세속적인 몰가치관과 그릇된 규범을 미화시키면서 탈복음화를 부채질하고, 비인간화의 침병으로 악용되고 있는 미디어의 환경공해에서 탈피하여 인간적, 종교적, 복음적 가치들을 전달하는 데 대중매체의 엄청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매스 미디어의 주인이 되어 강한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자.

“은 세상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 15)



매스콤, 그리고 청소년

육완태(토마스 아퀴나스)

오늘날 발달된 매스 미디어는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전파와 인쇄매체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그의 역기능 또한 어지러울 정도로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지구 구석구석을 파고든 매스콤의 힘은 세계를 한 덩어리로 묶는 기능을 해온 반면, 그 반대로 필요없는 부분의 힘을 낭비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중세의 매스콤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극히 원시적인 수단에 불과했다.

단지 일부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문자의 활용만이 극히 초보적인 전달매체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1430년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후 전달매체는 급속한 발전을 가져온다.

이에 병행해서 직조기의 개량으로 대량의 리렌지(紙)가 생산되고 동양의 제지기술이 십자군(十字軍)을 통해 유럽 땅을 밟으면서 전달매체의 생산은 활기를 띤다.

당시 교회는 일반인들이 성서를 읽는 것을 방해하던 시절이었다.

교회의 승려나 수도자들은 양이나 송아지 가죽에 성서를 베껴쓰는 형태였다.

인쇄와 제지술의 발달은 이 같은 구습을 일시에 무너뜨린다.

그리스의 고전이나 단테, 보카치오, 페트라르카가 인쇄되어 퍼지고 「아서왕의 이야기」는 날개 돋친 듯 팔렸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시 사회에 혁명적인 사고를 가져온 것은 성서의 대량 인쇄와 이의 보급이었다.

‘태초에 하느님의 말씀’이 매스콤의 형태라면 이 같은 말씀의 보급은 성서(聖書)의 진의(眞意)에 부합되는 변혁이었다.

이같은 매스콤의 형태는 19세기 들어 급변한다. 전파매체의 등장이다.

20세기에 들어서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 이제는 홍수에 비유될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온갖 전파로 꽉 차게 된 것이다.

지식산업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매스 미디어의 발달은 오늘날에 와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수단으로 변모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기능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그 가운데 가장 화급하고도 풀기 힘든 것이 매스콤과 청소년의 문제이다.

청소년기의 문제는 정신의 성장이 육체의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데서 항상 심각함이 빛어진다.

자아 인식의 첫 단계인 청소년기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그들의 인식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정신세계의 함양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매스콤의 발전과 이에 부수되는 온갖 지식의 홍수는 그들의 사고를 혼란스럽게 하기에 족하다.

친숙성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청소년기의 특성이다.

따라서 매스콤에서 즐거움을 위주로 한 과도된 지식의 전달이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새로운 지식을 감지할 때 그들은 쉽게 동화되기 마련이다.

더구나 그렇게 수용되고 동화되어 버린, 과도된 지식은 평생 지워지기가 힘들게 된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청소년들은 입시지옥의 와중에서 한눈 팔기가 극히 어렵다.

육체와 정신이 일시에 커가고 거기다 주변 사회로부터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매스콤) 속에서 질풍 노도와 같은 시기를 보내는 게 청소년의 입장이다.

그들을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정신을 함양케 하며 새로운 세계로의 인식을 갖게 하는 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입시지옥과 각종 매스콤의 홍수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건전한 생활인으로서의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는 우리 어른들 모두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된다.

숲정이 산책



TV는 그만 보고...

홍보국 비디오 소개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좋은 비디오



어린이

- ▶ 배어 140분
- ▶ 프리 윌리 112분
- ▶ 후크 140분
- ▶ 비밀의 화원 102분
- ▶ 날으는 운동화 96분
- ▶ 여름날의 독수리 89분

청소년

- ▶ 노인과 바다 92분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20분
- ▶ 로빙화 98분
- ▶ 스킨타이 98분
- ▶ 파워 오브 윈 128분
- ▶ 마지막 승리 95분

교육

- ▶ 나무를 심은 사람 30분
- ▶ 나를 도와주세요 25분
- ▶ 바티칸 사본 20분
- ▶ 티아 부인 27분
- ▶ 과부의 현금 30분
- ▶ 고백의 비밀 104분

성인

- ▶ 엘레니 116분
- ▶ 흐르는 강물처럼 119분
- ▶ 뮤직 박스 120분
- ▶ 다웃파이어 117분
- ▶ 필라델피아 120분

텔레비전을 위하여 바치는 기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
영원한 생명과 오늘의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풍부한 선을 베풀어 주신 당신께
흠숭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요,
인간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스승 예수여, 당신 자비로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어, 모든 사회홍보 수단이 결코 인간을
멀망에로 이끄는 일 없이 인간의 유익과 향상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텔레비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스승 예수여, 텔레비전의 남용을 기워 끊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작은 희생을 바치나이다. 아멘.

제29차 홍보주일 교황 담화문(발췌)

영화는 문화와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금년 홍보 주일을 맞아, 저는 여러분께 ‘문화와 가치의 전달자’인 영화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올 한 해 동안 세계 각지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널리 보급된 표현 매체인 영화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적 종교적 가치들을 전달하고 증진시키는 일에서 홍보매체가 갖는 중요성과, 이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특별한 책임을 자주 언급해 왔습니다. 사실 최근 몇 십년간 사회홍보 분야에서 이룩된 진보와 발전을 지켜보면서, 교회는 대중매체의 위험한 조종력(操縱力)과 함께, 잘만 이용한다면 복음화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대중매체의 엄청난 역량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홍보매체 가운데서도 영화는 이제 보편화되고 높이 평가받는 매체입니다. 영화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을 바탕으로 관객들과 그들의 잠재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영상으로 표현되는 전달형태라는 점에서,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대중, 특히 젊은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그 선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초창기 때부터 종교영화 분야도 함께 발전해 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수많은 종교영화들이 제작돼 왔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을 직접 다루고 있는 영화들뿐 아니라 다른 여러 문화와 종교전통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에서도 흔히 주목과 찬사를 받을 만한 인간적 종교적 가치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가 문화교류의 매체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교육이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현실들에 대해 개방된 자세와 사고를 지니게 하는 중요한 매체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화는 서로 간의 거리를 극복하도록 도와 주고, “인간의 존재와 실



존만이 지니는 독특한 양상”이자 “각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유대를 맺어줌으로써 인간 실존의 상호관계와 사회적 특성을 형성하게”(1984년의 홍보주일 담화) 하는 문화에 특별한 품위를 얻게 합니다.

영화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영화가 갖는 이러한 문화적 중요성을 포기하지 말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용없는 영화, 오락만을 겨냥한 영화, 관객을 놀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제작은 인간의 진정하고 심오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회 홍보매체와 마찬가지로 영화도 개인의 문화적 인간적 성장에 기여하는 힘과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진실을 왜곡하거나, 인간 존엄성을 모욕하고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격한 감정을 유발시키는”(1981년 홍보주일 담화) 폭력과 섹스 장면들을 사용함으로써 부정적 행위를 부추기는 거울이 될 때, 영화는 자유, 특히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신문지면에서 읽을 수 있는 모방행위의 해로운 영향들, 그러한 타락적인 모방행위를 야기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코 자유로운 예술의 표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동산동 아남제일대리점
 T.V·전축·V.T.R
김 남 태(바오로)
김 윤 태(돈보스코)
 이리시 동산동 동양호텔 옆
 ☎(0653)842-2604~5, 54-9504
 아남서비스 834-2628

효 자 한 의 원
 한방각과, 비만, 알러지성 체질,
 요실금 치료
박 우 순(유스티노)
유 혜 경(루시아)
 효자성당←→목화APT 사거리
 ☎(0652)222-3129, 226-1075

LG(금성)에어콘 총판
 ·에어컨,합온합습기,공기정화기
 ·온풍기,대형냉장고,중앙집중식냉·난방
원종삼(발라바)·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북종합전시장
박 영 근(공사가)
장 정 신(젼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가치의 전달자

복음서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오직 진리 안에서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요한 8,32 참조).

저는 영화분야의 책임자들에게 직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에 투신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관객들에게도 영화를 포함한 대중매체에 의해 야기되는 갈수록 절박한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과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려낼 줄 아는 판별력을 기르도록 당부드립니다.

영화가 그 근본취지에 따라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자 할 때는, 현실에 입각해, 우리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즉, 사회참여라든가, 폭력, 온갖 차별, 전쟁, 불의에 대한 고발과 같은 문제들을 성찰해 볼 소재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달자로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개방성이 다양한 문화의 접근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도와 주며,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인식하여,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영화들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수용자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영화의 사회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화는 관람자들에게 주제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적절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젊은이들끼리 영화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 봅니다. 동아리에 그들은 능력있는 전문교사의 지도로 밝고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화가 요구하는 각별한 의무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는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복음화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화감독들, 영화제작자들 그리고 영화라는 복잡다단한 세계에서 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행동을 하도록 당부드리며, 자신의 직업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인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제작분야에서도 용기있는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당부드립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에게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느낍니다. 교회가 그러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교회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적절한 지원과 격려사업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요십이 (1134) 김병오



성바오로 서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터전이 되고자 합니다.
 서적, 카세트테이프, 비디오, 슬라이드, CD 등
 중앙성당 옆
 ☎ (0652)252-3398

성전건축 사랑 기념
바 자 회
 때 : 6월8일~12일까지
 "좋은 물품과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효자 우전 성당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일반X-선촬영
 흉과공중 측정·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성인병검진·자동차적성검사
 박인숙(아나디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어린이사진 전문 전국체인점
코코포도 전주점·
유일 스튜디오
 ·아가앨범, 웨딩앨범
 ·결혼, 회갑 비디오 촬영
 류영문(가메파노) 류문식(가필로)
 전통성당 정문 앞
 ☎ 83-1949, 84-9740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쌍방울 효자 전문점
 이 오 환(요한)
 양진희(아나디시아)
 효자 테니스 앞
 ☎ 222-1723

교회 간행물, 하나라도 읽자!

• 정리 : 편집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매스 미디어(Mass media :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각종 영상 매체와 출판물 등)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디어를 주관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다분히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데 있다. 물론 이 매스 미디어가 어떤 경우 예를 들면 복음의 가치인 생명, 인간의 존엄성, 사랑, 희생, 봉사 등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고, 좋은 면을 제시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온갖 폭력과 섹스, 재물(돈) 등 비뚤어진 가치관을 보여줄 때도 있다. 이에 우리는 이 거대한 매스 미디어를 접할 때 특히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를 볼 때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매스 미디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 깊숙히 자리잡게 될 것이다.

오늘은 29번째로 맞는 홍보 주일이다. 홍보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 하나님과 따뜻한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길잡이인 교회 간행물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지금 신청하여 적어도 한 가정에 하나씩은 읽도록 하자.

경향잡지-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로 1906년 10월 19일 창간되었다. 창간 90주년을 앞둔 경향잡지는 한국 주교단의 기관지로 믿는 이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양식으로써,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길잡이가 되는 월간잡지이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목소리' 경향잡지는 신자라면 누구나 꼭 필독해야 하는 책이다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발행, 가격-2,200원, 1년 구독-22,000원).

연락처 : ☎ 100-600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16호.
☎ 02) 466-0123

생활성서-하느님의 말씀을 삶 안에서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접하며 생활하도록 돕고 있다(까리파스 수녀회 발행, 가격-3,900원, 1년 구독-39,000원).

연락처-☎ 132-106 서울시 강북구 미아 6동 670-28 (행전빌딩내) ☎ 02) 945-5986

내 친구들-종교교육과 건전한 만화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창간, 성서, 성인전, 어린이 상담 등으로 엮어진 책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다솜출판사, 가격-3,900원, 1년 구독-39,000원).

연락처 : ☎ 132-109 서울시 강북구 미아 9동 103-36 ☎ 02) 945-7979

가톨릭 신문-교회소식, 신학강좌, 교리상식, 다양한 고정칼럼, 신앙수기 등 시대의 징표를 읽는 주간신문이다 (1년 구독-25,000원).

연락처 : ☎ 560-090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가톨릭센타내 ☎ 0652) 85-1275

평화신문-위 가톨릭 신문과 같이 교회소식, 강론, 사목단상 등 다양한 편집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주간신문이다(1년 구독-24,000원).

연락처 : ☎ 560-090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가톨릭센타내 ☎ 0652) 85-4102

이밖에도 전문지인 「신학전망」 「사목」이 있고, 성서를 묵상하고 나누며 실천하는 「아급의 우물」 「성서와 함께」가 있으며 교리교사를 위한 「디다케」가 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출판되는 책들도 1년이면 100여권이 넘는다. 생명의 말씀이 있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회서적도 구입하고 싶으면 전주 중앙 성당 옆 '성 바오로 서원'에 문의하기 바란다(☎ 252-3398).

제발 제발 교회 간행물에 관심과 사랑을 갖자.

그린버티컬

커텐, 버티컬, 블라인드
롤스크린, 슬라이딩(칸막이)

장상수(바오로)
이양님(루시아)

영등동 성당 ↔ 동부시장 사이
☎ (0653) 52-0018

자연산 활어 전문점

23호 화센터
도다리, 농어, 광어
<치량대기, 전화주순 신속배달>
최금석(요셉) 윤은숙(소피아)
송천동 직판시장 2층
☎ 254-7129
호출기 012-682-0046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 84-6085, 223-5823

개원 명인 치과의원

이명호
김선인(실비아)
서도프라자 옆 대일빌딩 2층
☎ 226-0900~1

교구 소식

- ❖ 교구청 휴무
 - 때 : 5월30일(화) 직원 소풍관계로
- ❖ 축! 견진
 - 6월3일(토) 오후4시 어양동 성당
 - 6월4일(일) 오전10시30분 중앙 성당
- ❖ 교구장 사목방문
 - 6월1일(목) 평화동, 동산동 성당
 - 6월2일(금) 영등동, 금마 성당
- ❖ 천호 피정 안내
 - 때 : 6월1일(목)
 - 주제 : 자비로우신 하느님
 - 감사 : 김진석 신부
 - 때 : 6월3일~7일
 - 주제 : 감사의 생활
 - 감사 : 송열섭 신부
 - 문의 : 73-6600
- ❖ 청소년 축제
 - 때 : 6월4일(일) 오전9시30분
 - 장소 : 윤호관
- ❖ 교구 합창단 단원 모집
 - 때 : 매주 월요일 오후7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4층
 - 신입지휘자 : 김해선(베네딕도)

-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때 : 6월3일(토) 오후3시
 - 장소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 치명자회 성지순례
 - 때 : 5월29일(월)
 - 장소 : 배론 성지
- ❖ 레지오 마리에 단원교육
 - 때 : 5월29일(월) 오후7시
 - 장소 : 창인동 성당
- ❖ 성령쇄신 대피정
 - 때 : 6월1일~2일
 - 장소 : 중앙 성당
- ❖ 성모기사회
 - 때 : 6월3일(토) 오전10시
 - 장소 : 효자동 성당
- ❖ 성령과 함께하는 성서피정
 - 때 : 6월1일~2일 오전10시
 - 장소 : 전동 성당
 - 감사 : 강요안 신부(부산교구)
 문호영 신부(서울교구)
- ❖ 휘꼴라레 모임
 - 때 : 6월4일(일) 오후2시
 - 장소 : 가톨릭센터

- ❖ 종교음악 연구회 반주자 교육
 - 때 : 5월30일(화) 오전9시30분
 - 장소 : 전동 성당
 - 대상 : 전주교구 반주자
(전자오르간 사용법)
- ❖ 새 사제 연수
 - 때 : 6월1일(목) · 장소 : 교구청

■ 권해드리는 책 ■

매일 성서 묵상 잡지

야곱의 우물(월간지)

· 가격 : 1,000원 · 1년 구독 : 10,000원
 “하느님 말씀을 살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서 말씀을 365일 매일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야곱의 우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으로 당신을 초대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감증을 느끼실 때, 살아 있는 말씀과 함께 웃고 울고 싶으실 때, 부담없이 펴보십시오.
 연락처 : 성바오로 서원 ☎ 252-339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생명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의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생명과 사랑의 문화를 이루기 위한 모두의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 주교단이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생명의 날로 지내기로 했다. 생명의 날 담화문에서 ‘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고 실현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한 서정덕 주교는 ‘현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복음화는 잉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불가침의 생명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생명 문화 창조를 위한 4가지 실천 사항을 덧붙인 서 주교는 생명의 날을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생명을 침해한 잘못들을 참회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불가침성을 홍보하며, 가정,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생명 존중의 교육을 실시하고, 각자 신분과 능력에 맞게 생명 수호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장했다. 어제, 27일(토) 우리 교구에서도 생명의 날을 맞이하여 생명 보호 사진전 및 환경 보전 사진 전시회를 가졌고, 10주된 태아의 발 배지 달아 주기 캠페인을 벌였다.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울관,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88-7717~8

써시오 바렌테 중앙점

전 안 기(시 문)
 김 순 열(골롬바)

한성여관 사거리
 ☎ 84-8986, 243-2929

코아 삼익피아노

- 현금가 6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각종 신용카드 현금가 할부판매
 - 일반악기 전문목 할부판매 및 도소매
 - 철저한 책임관리 및 사후 서비스
- ☎ 86-1181, 80-1111(교)
 호출기 015-670-1651

동림 목재 산업

문틀, 도어, 창호 제작, 가구, 싱크대
 주문 제작, 실내 인테리어

임 일 택(요 셉)
 안 옥 회(엘리사벳)

☎ 222-9754
 휴대폰 011-651-6351

(유) 우도건설

온실설치공사(유리, PC, 비닐자동화),
 저온저장고, 축사, 집하장

소 근 호(스테파노)
 ☎ (0652)243-6866, 241-2546
 호출기 012-681-0377
 휴대폰 011-671-0377

중앙 주유소

전회주문 신속배달

강 경 화(마틸다)

군산시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
 ☎ (0654)467-0350~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주의 승천 대축일(홍보주일)

1. 성모의 밤 : 30일(화) 후 7시30분
제1부-미사, 제2부-행사(꽃불, 예물 봉헌 있음)
2. 특별기도 및 성체감복 : 1일 저녁미사 후
3. 병자 봉성체 : 2일 오전중 * 사무실에 신청바람.
4. 사목회 상임 : 2일 저녁미사 후
5. 본당 먹거리 잔치 : 4일 장엄미사 후
6. 장우회 소풍 : 6일(대상-60세 이상 남, 회비-남원
신청-사무실, 31일까지)
7. 비품마련 특별헌금 수입액 : 소계-105만5천원
누계-2523만5천원
봉헌액 : 조순자, 김효영, 임경애, 박연례-각 5만원, 전귀이, 최
순남-각 1만원, 김동주-50만원, 김순희, 송복남-각 3만원,
이석규, 김철문, 권기성, 최규철, 백백남-각 10만원, 이정순, 황
경하, 익명-각 2만원, 김계수-20만원, 소계-154만원, 누계-
1864만5천원.
8. 모임 : ①꾸리아(오늘,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②반회장 모임(1일 전 10시30분)
③올드레아(4일 장엄미사 후)
9. 축! 혼인 : 오늘 12시 신랑-국중연 군
신부-최인순(이사벨라) 양
10. 금주 청소 : 중노20, 21반, 차주 청소 : 중노22, 23반
□ 지난주 봉헌금 : 995,050원 □ 교무금 : 1,517,000원

1. 차주 모임 안내 : 꾸리아-6월4일(일요일) 후 2시, 장소-강당
자모회-6월1일(목요일) 레지오 회합 후, 장소-회합실
성모회-6월4일(일요일) 공식미사 후, 장소-강당
2. 예비신자 모임 : 6월4일(일) 공식미사 후
* 한 가정에 한 분씩 인도합니다.
3. "청소년 축제" 행사 : 6월4일(일) 9 : 30~18 : 00, 장소-윤호
관, 대상-교구내 중·고생(성소에 관심있는 대학생, 일반포함)
준비물-미사도구, 중식 * 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중·고등부 부활제란 판매 이익금 전액을 무지개 가족에게 전
달하고 봉사하였습니다. 관심과 협조해주신 자모회 어머니 및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전례 안내 : 5월28일 전례-전병구(비오)
복서①김강열(아오스딩) ②최은실(로스리아)
6. 청소 안내 : 갑주-평화의 모후, 차주-정의의 동정녀
7. 성전의자 성금내신 분 : 김현필(베드로) 100,000
장호임(루시아) 100,000
□ 지난주 봉헌금 : 1,223,200원 □ 교무금 : 1,488,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주의 승천 대축일

1. 주의 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 28일(오늘) 장소-초남리, 준비물
-미사준비, 도시락, 성당 출발-오전 9시
2. 오늘은 홍보 주일이며 생명의 날 : C.C.K.에서 홍보활동 나옵
니다.
3. 성모의 밤 행사 : 31일(수) 저녁 8시-유인물 참조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준비하세요.
4. 가정 방문 : 30일(화)오전 10시-태평 3반,
6/1일(목)오전 10시-태평5반, 오후 2시-고사1반
6/3일(금)오후 2시-태평 4반
5. 예비자 교리 : 주일 오전 9시-수녀님반,
목요일 저녁 8시-신부님반
6. 성체 감복 : 6월1일(목) 저녁미사 후
7. 모임 : 성우회, 대견회-6월4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사목회-6월4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8. 성소주일, 청소년주일 행사 : 6월4일(다음주일) 윤호관
9. 전입을 환영합니다 : 이복순 마리아(완산반), 이덕주 루시아(완
산반) 김우상 유스티노(고사 2반)
성당 청소 : 6월3일(토) 천사의 모후Pr. 사도의 모후Pr.
금주 전례 : 해설-오교신, 복서-안철조 부부
차주 전례 : 해설-형임순, 복서-유두석 부부
봉헌-김창환 가족
□ 주일헌금 : 570,350원 □ 교무금 : 1,227,500원
□ 감사헌금 : 180,000원

1. 금주 : ①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②차량 축복식(공식미사 후)
③혼인 강좌(전 9시30분, 센터)
④교무금 납부주일
2. 성체감복 및 조배 : 1일(전 10시)
3. 성가정회 : 1일(전 11시)
4. 성모성심회 : 1일(후 3시)
5. 병자 봉성체 : 2일(후 2시)
6. 성모의 밤 행사 : 31일(수요일)-오후 8시
7. 성령과 함께하는 성서 피정 : 1일(목)~2일(금) 오전 10시~오
후 4시
감사 : 강요안(요한) 신부님-부산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님
문호영(프란치스코) 신부님-서울 11지구성령쇄신 지도신부님
이수현(보나벤투라) 신부님-전주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님
이병호(빈체니오) 신부님-파견미사 및 강론
7. 차주 : ①요셉회(후 6시)
②제속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③올드레아(후 8시)
□ 주일헌금 : 2,146,51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상근

◎ 축! 주의 승천 대축일

- ◎ 오늘은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1. 모임 : ①성모회, 자모회-오늘
②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 -다음주일
③6월 사목회 월례회-3일(토) 저녁미사 후
 2. 축! 혼인 : 신랑-김준호(도마), 신부-유만순(크리스티나)
6월4일(일) 12시, 성당
 3. 혼인강좌 : 28일(일) 오전 9시30분, 가톨릭센터
 4. 성소주일, 청소년주일 행사 : 6월4일(일) 윤호관
 5. 성령쇄신 대피정 : 6월1일(목) 오전 9시부터, 전동성당
 6. 푸르실료 교구 올드레아 : 6월6일(화) 해성학교 강당
 7. 성당 청소 : 갑주-천주의 성모Pr.
차주-구세주의 모친Pr.
 8. 금주 전례 : 해설-이춘봉, 복서①최원규 ②이석남
봉헌-김영신 가정
차주 전례 : 해설-김영신, 복서①우경숙 ②한동욱
봉헌-김종석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362,440원 □ 교무금 : 112,000원

◎ "환호소리 높은중에 히느님, 오르신다. 나팔소리 나는중에 야채, 올라가신다"(시편 47,5) 제1회 '생명의 날'

1. 경축! 예수 승천 대축일 : 오늘 10시30분, 야외미사
구이 저수지 동산
2. 주교님 본당 사목방문 : 1일(목) 오전 10시, 사목회 임원 및 구
역반 회장은 전원 참석바람.
3. 성령과 함께하는 성서피정 : 1일~2일 전 10시~후 4시, 전동성
당, 회비-일만원
4. 첫영성체반 개학미사 : 30일 후 4시, 부모님과 함께
5. 교도소 성가 경연대회 : 31일 후 1시30분-후원회원들의 격려와
응원바랍니다.
6. 성체감복 및 성시간 : 1일 저녁 7 : 30 "예수 성심 묵상"
7. 유아 세례 : 3일 후 3시(사무실에 미리 신청)
8. 구역형제회 조직 : 1~10구역까지, 대표회의-29일 저녁 8시(대
표자 명단은 게시판 참조하십시오)
9. 청소년 축제 : 4일 전 9 : 30 윤호관, 본당 출발-8 : 30
10. 반미사 : 2일 후 3시, 7-2 저녁 8시 5-6
11. M.E 가족나눔 모임 : 30일 저녁 8시, 사제관
12. 축! 혼인 : 4일 12 : 30 평화동 본당
신랑-김현상(마오로) 신부-김성숙(안나)
김한석 씨 3남, 김덕동 씨 장녀
□ 지난주 봉헌금 : 1,273,190원 □ 교무금 : 2,333,000원